

## 섬의 광포를 위해 곳곳이 살고 싶다

### 데우리 섬의 ‘사다 다이치’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철길을 따라 215킬로를 달리면 홋카이도 북부 서해안에 있는 하보로가 나온다. 일찍이 탄광도시로 번성한 곳이다. 그곳에서 다시 서쪽으로 약 30킬로미터 바닷길을 가면 섬이 있는데 해안선 길이가 약 12킬로인 이 섬이 ‘오로론섬’으로 잘 알려진 데우리 섬이다. 오로론은 바다오리를 말한다.

섬으로 가는 배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의 하루에 한차례만 왕복 운항한다.

해마다 3월이면 바다오리를 비롯한 바닷새 수십 종이 번식을 위해 데우리 섬을 찾는다. 번식기인 4월부터 8월까지의 엄청난 수의 바닷새가 기암절벽을 뒤덮는다.

끝없이 펼쳐진 군청색 바다. 바위에 부딪쳐 춤추는 흰 물보라, 하늘을 뒤덮을 듯 날갯짓 하는 새들……. 그 경관은 웅대하고 아름답다. 대자연이 그린 한폭의 그림이다.

배에서 내려 언덕 위를 올라다보면 흰색 2층 건물이 우뚝 서 있다. 학회원인 사다 다이치가 경영하는 호텔이다. 객실 수가 30여 개로 데우리 섬에서 가장 큰 숙박시설이다.

섬 주민은 약 260세대 800여 명(1978년 현재)이다. 당시 섬에는 학회의 대블록(지금의 지구(地區))이 구축되어 예순 아홉 살인 사다가 대블록장이었다.

사다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사다의 할아버지는 지금의 아오모리현 출신으로 메이지(1868~1912년)초기에 데우리 섬으로 이주해 개척을 시작한 선구자중 한사람이었다. 할아버지가 어업으로 성공하자 할아버지를 따라 아오모리와 아키타에서 잇따라 사람들이 모여 섬에 정착하게 되었다.

사다의 집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선주로 섬의 실력자로서 명성이 높았다.

청어 잡이가 호황을 누릴 무렵에는 어업 근거지 중 한곳으로 번성해 인구가 2000명 가까이 불어 날 때도 있었다.

바다는 풍어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모질고 가혹하다. 거친 바다는 엄니를 드러내고 때로는 목숨도 삼켜버린다. 풍어일지 목숨을 잃을지 내일 일은 알 수 없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대자연을 상대로 살면 인간의 무력함을 느낄 기회가 많다. 그런 만큼 신앙심이 강한 사람도 많았다.

선주인 사다의 아버지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용신당을 세우거나 지장보살을 건립했다. 또 어부들에게도 어떤 것이든 좋으니 신앙을 가지도록 권했다. 그것이 최고의 선행이라고 믿었다.

사다도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자랐다. ‘불교청년단’을 조직해 초대 단장이 되었다. 섬의 청년들을 불러내어 좌선이나 탁발수행에도 힘썼다.

그런데 사다 집안은 차츰 기울기 시작해 1919년에 도산하고 만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사다는 재기할 생각으로 어선을 이끌고 지시마섬 최북단이나 캄차카 앞바다까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만주(현재 중국 동북지방)의 헤이룽강(黑龍江)에서 민물고기 어업에도 종사했다. 그러나 시대의 격류에 휩쓸리기만 할 뿐 사다 집안에 역전할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다.

1939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도산했다고는 하지만 토지 9만 9173제곱미터(3만평)를 남겨주었다.

사다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어업을 이어갔지만, 생각만큼 잡히지 않고 해난 사고까지 겹쳤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아버지가 남겨준 토지 중 5만 6115제곱미터(2만평)를 팔아 빚을 갚는데 충당했지만, 그리 엄청난 금액은 아니었다. 남은 토지는 살 사람이 나서지 않았다.

채권자들이 날마다 들이닥쳐 빚 독촉을 해댔다. 갚을 길이 전혀 없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망연자실했다. 야반도주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훗카이도 루모이시로 가서 남의 눈을 피해 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지인을 우연히 만났다.

사다가 섬을 도망쳐 나온 일을 고백하자 종교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다 씨도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잡이는 잘 되지 않고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숙명이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숙명을 전환할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숙명에 이기느냐 지느냐,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열쇠는 결국 거기에 달렸다.

사다는 줄곧 의문스러웠다.

‘청년시절부터 남들보다 신앙심이 강해 여러 신앙활동을 했다. 나만큼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런데 불운이 잇따르는 바람에 겨우 연명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대체 왜!’

사다는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신이냐 부처 따위 없다!’고 생각했다.

지인은 사다의 괴로운 심정을 헤아리듯 격려하며, 종교의 가르침에는 고저천심, 즉 ‘높고 낮음과 얕고 깊음’이 있다고 말했다.

“인생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령 지난해 달력을 옳다고 믿고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이 차질을 빚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데우리 섬에서 이웃 섬인 야기시리 섬 지도를 보고 걷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목적지에 가지 못하겠지요.

종교는 행복해지는 근본적인 길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올바른 종교를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니치렌대성인불법(日蓮大聖人佛法)이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단체가 창가학회입니다.

사다 씨는 지금까지 다른 섬의 지도를 보며 걸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미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말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가학회의 신심은 확실합니다. 그러한 숙명을 전환할 수 있는 신심입니다. 사실, 저도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다씨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힘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사다는 이때 마흔여섯 살이었다.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희망이 솟았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인을 믿고 학회의 신심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자고 결심했다.

불법대화는 희망을 이끌어 내고 용기를 이끌어 내는 생명의 촉발작업이다.

1955년 5월, 사다는 창가학회에 정식으로 입회했다.

사다 다이치는 아내와 함께 신심을 시작했다. 사다도 아내도 입회하자 오로지 제목을 불렀다.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이었다.

학회의 지도대로 절복, 홍교하러 뛰어다녔다. 그러자 심장판막증으로 괴로워하던 아내의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차츰 나아졌다.

두 사람은 ‘이것이 학회에서 말하는 공덕이구나!’하고 생각했다. 어본존이 진심으로 고마웠다.

입회한 지 다섯 달 뒤, 사다는 신심의 강한 확신을 안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데우리섬으로 돌아가자고 결심했다. 사다에게는 여전히 큰 빛이 있고 처한 환경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다. 단지 마음만은 크게 바뀌었다.

빛 독촉을 견디지 못해 섬을 떠났을 때와 달랐다. 가슴속에는 ‘데우리섬을 광선유포 하겠다! 모든 섬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결의가 활활 불타올랐다.

사다는 데우리섬에서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섬 곳곳을 홍교하러 다녔다.

섬사람들은 사다를 잘 알고 있었다. 대대로 선주였지만 빛 때문에 괴로워하다 ‘행방을 감춘 남자’로 알려져 있었다. 절복을 하면 비웃음을 당하고 소금세례를 받기도 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사다는 결국 머리가 이상해졌다. 이번에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종교에 홀리고 말았다. 불쌍한 사람…….”

좁은 섬이다. 비판하는 소리는 바로 당사자의 귀에도 들려왔다.

분하고 원통해 참을 수가 없었다.

섬에는 상담할 간부도 동지도 없다. 이를 악물고 견뎠다.

사다는 열심히 창제하며 생각했다.

‘아직 빛도 못 갚는 어려운 상태인데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게 당연하다. 실증이다. 실증을 보일 수밖에 없다. 어본존 이시여! 섬의 광선유포를 위해 반드시 경제혁명 하겠습니다.’

실증이 없는 결의는 덧없다.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은 “도리(道理) 증문(證文)보다도 현증(現證)이상은 없느니라”(어서 1458쪽)하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사다는 ‘섬을 광선유포 하려면 먼저 생활에서 승리해 실증을 보여야 한다’고 결론 짓고 기원하고 또 기원했다.

창제는 생명력과 지혜의 원천이다. ‘고기잡이 말고 다른 돈벌이는 없을까’하고 궁리한 끝에 집 일부를 개조해 민박을 하기로 했다. 민박이라고 해도 이불 세 채가 다였다.

그런데도 5월부터 9월까지 손님이 꽤 찾아왔다.

겨울에는 데우리섬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바다는 거칠어지고, 하늘은 잿빛 구름에 뒤덮이고, 눈보라는 포효하듯 휘몰아친다. 배도 하루에 한 차례 왕복 운항하고 날씨에 따라서는 며칠씩이나 결항하기도 한다.

사다는 ‘지금이라면 느긋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생각했다. 눈보라를 뚫고 홍교하러 다녔다. 절복을 하려고 글을 배워 ‘대백련화’와 ‘세이교신문’을 읽고 어서를 공부했다.

섬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나자 8세대 홍교를 이루었다. 민박도 끈기 있게 도전해 해마다 조금씩 꾸미고 고치다보니 시설도 체법 갖추어졌다.

1961년 가을, 데우리섬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곳을 무대로 하는 ‘바다오리섬’(훗카이도방송 제작)이라는 드라마가 전국으로 방영되었기 때문이다.

드라마 주역은 섬에 사는 어린 오누이다. 그 남동생 역에 사다의 아들인 가즈히로가 기용되었다. 이 드라마 방영으로 데우리섬은 경치가 아름다운 바다오리 번식지로 단번에 유명해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된다.

민박수입도 순조롭게 늘었다. 그러나 섬에는 물이 적었다.

1962년, 사다는 손님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뒷산 골짜기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호스를 연결하러 갔다.

30미터 정도 되는 절벽에 올라 작업을 시작했다. 그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다. 의식을 잃었다. 육지 병원으로 긴급 수송되었다. 검사 결과는 두개골 함몰이었다. 경추도 어긋났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가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어 수술은 못한다’고 말했다.

사다를 진찰한 의사는 손쓸 방도가 없다며 퇴원하도록 가족들에게 권유했다. 게

다가 “이대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하고 말했다.

사다는 ‘내가 쓰러지면 누가 데우리섬을 광선유포 할 것인가! 반드시 완치하고야 말겠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다!’하고 자신에게 말했다.

집에 돌아온 사다는 목을 고정하는 장치를 달고 가만히 누워있어야 했다. 온몸이 저렸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사람들 대부분이 ‘사다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사다의 귀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다. 기원했다. 필사적으로 참제했다.

‘섬의 광포를 위해 곳곳이 살고 싶다’는 집념이 사다의 생명을 지탱했다.

3년이 지났다. 겨우 걸을 수 있을 만큼 몸을 회복했다. 광선유포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지용보살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온 몸에는 생명력이 가득 넘친다.

더 이상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회원들을 위해 ‘세이교신문’을 배달하고 싶어졌다. 목에 깁스를 한 채로 비틀비틀 걸으며 한 집 한집 돌았다. 그리고 절복을 시작했다.

깁스를 한 사다를 보고 “마치 우주인 같군.”하고 숙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다는 웃음으로 날려버리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목숨을 건졌다. 이것이 이미 공덕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건강해 질 테니 지금 내 모습을 잘 봐두시오.”

사다는 시련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투혼을 불태웠다.

그리고 자신이 선언한 대로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포기한 부상을 완전히 이겨냈다.

사고를 당한지 6년 뒤인 1958년에 일어난 일이다.

어느 날 돌길을 뜯으려고 배를 띄워 절벽 아래에 댔다. 바위에 올라 작업을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절벽 위에서 주먹만 한 돌이 사다의 머리위에 바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돌에 맞은 사다는 의식불명에 빠져 이때도 육지병원으로 긴급 수송되었다.

두개골에 금이 많이 갔다. 그런데 불가사의하게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었다.

‘신심 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하는 의문이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바로 ‘전중경수(轉重輕受 무거움을 바꾸어 가볍이 받는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신심으로 과거세의 무거운 업(業)을 바꿔서 현세에서 가볍게 그 과보(果報)를 받는 것을 말한다.

‘머리를 계속 다치는 이유는 틀림없이 과거세의 악업 때문이다. 본디 목숨을 잃

어야 하는데 신심 덕분에 두 번이나 살아날 수 있었다. 목숨을 건진 이유는 내게 광선유포를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어본존에 대한 고마움과 환희가 가슴속에 가득 넘쳤다.

사다는 한 달 만에 퇴원해 곧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사다가 민박경영에 힘을 쏟자 손님이 해마다 늘었다.

사다가 공덕체험을 하나하나 쌓을수록 신심을 시작하는 사람도 늘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민박집을 대대적으로 개축해 30여개 객실을 갖춰 데우리 섬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새로 개장한다.

또 사다가 격려한 사람들 중에서 섬의 광선유포를 깊어지는 인재도 속속 탄생했다.

데우리지부 초대 지부장이자 훗날 향토자료관인 ‘데우리향토관’을 개관한 모리사키 고조도 그중 한 사람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데우리섬 동지의 상황을 보고 받아 잘 알고 있었다.

신이치는 낙도본부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섬에서는 실증을 내지 않으면 광선유포의 길을 열 수 없습니다. 학회원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공덕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회원이 섬과 지역을 위해 애쓰고 공헌해 인간으로서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선유포를 총마무리 하는 결정타입니다.”

(신·인간혁명 제28권 제4장 ‘승리섬 19 ~ 승리섬 25’)

<끝>